

#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

## 서울 삼성동 코엑스서 과학계인사 1천여명 참석 과학기술상 5명, 유공자 74명 훈·포장·표창



제34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4월21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대중대통령, 김영환과학기술부장관, 김병수과총회장, 박익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등 내빈과 과학기술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 김대중대통령 치사

이날 기념식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 일류국가, 지식경제 강국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활용도를 한 차원 높여 과학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 일, 둘째 -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 셋째 - 우수한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체제를 더 한층 강화하는 일, 넷째 - 유망기술의 전략적 선택과 개발의 지속적 추진, 다섯째 - 여성 과학기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를 일궈내기 위해 여러분과 같이, 국민과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과총회장은 기념사에서 “이 자리는 21세기 세계사의 큰 변혁기에 과학기술입국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단합의 장”이라고 말하고 “최근에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갖게 해준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유공자훈포상제도를 새로이 제정하여 이번엔 직접 포상해 주신 것과, 긴축을 요하는 국가예산중

에도 대통령님께서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할애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과학기술상수상자 5명과 과학기술진흥유공자74명에 대한 훈·포장수여 및 표창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 과학상=許亨澤(한국해양연구원 연구위원) △ 기술상=千敬俊(삼성전자 통신연구소장) △ 기능상=李龍宰(포항제철 냉연부 공정품질주임) △ 진흥상=吳鎭坤(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시장(洪善基))

### 과학기술진흥유공포상자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吳紘禕(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과학기술훈장 혁신장=金在官(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위촉 연구원), 閔震植(연세대 의대 연세암센터 원장), 朴元勳(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孫 郁(삼성종합기술원 원장) △ 과학기술훈장 웅비장=徐日煥(충남대 교수), 金昌奎(주)태평양 고문), 金榮中(서울대 약대 교수), 金廷九(서울대 교수), 李在英(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석좌교수), 金學銖(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閔季植(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尹冀鎰(연세대 교수), 金載滿(기아자동차(주) 전무), 李賢秀(주)삼양제넥스 부사장), 兪香淑(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柳在亨(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朴英珧(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 金秀重(경북대 교수), 金基文(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朴昌鉉(한국디엔에스(주) 대표이사) △ 과학기술훈장 진보장=孫熙基(LG전자(주) 상무), 金南容(현대자동차 이사), 禹誠一(한국

과학기술원 교수), 宋鎭洙(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金在燮(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과학과 조교수), 金光泰(주)퓨처시스템 대표이사), 金道然(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과학기술포장=金國憲(한국전기연구원 계측제어연구팀 그룹장), 李大成(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추진기관연구부장), 金希永(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安仁英(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李相濽(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부교수), 姜錫重(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교수), 李鍾玉(기초기술연구회 사무국장), 李鏞周(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통령표창=吳泰圭(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黃正燮(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정보전력체계설계개발담당), 韓洙德(LG전자(주) 상무), 崔水榮(한림대 유전공학과 교수), 金淳

植(주)새한기술연구소 소장), 金胎辰(주)바이오텔 대표이사), 黃仁澤(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鄭宰準(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李炳壽(주)남원건설엔지니어링 부사장), 金東靈(삼성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장), 金成基(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趙升濟(서울대 사범대 교수), 李龍泰(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장), 河信載(한국항공우주연구원 행정관리부장), 趙文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경영정보센터장), 李敬德(주)연합정보기술 대표컨설턴트), 林憲鎭(케이티전기(주) 부설 기술연구소 소장), 丘在玉(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교수) △ 국무총리표창=黃義鎭(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徐光德(현대중공업(주) 기전연구소 책임연구원), 李賢雨(주)유니크기술연구소 책임연구

원), 張仁和(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金愚植(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洪孝貞(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鄭在喜(동화약품공업(주)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洪志亨(순천대 동물자원·산업기계공학부 교수), 金昌奎(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朴和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金明煥(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李東洙(충남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秦敎澤(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黃石根(경북대 교수), 河權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李泰洙(충북대 의대 부교수), 金眞洙(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崔學仙(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金東日(삼성전자 생산기술센터 이사), 張赫模(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운영과장)

영광의 일곱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과학상 수상자

한국해양연구원 許亨澤 연구위원  
남극과학기지 건설사업 주도



“개인이 아니라 해양과학 분야에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힌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과학상 수상자는 우리나라 해양학의 개척자로 꼽히는 한국해양연구원의 허형택 연구위원. 대학을 졸업하고, 불모지 상태의 해양과학분야에 몸담은 이래 국립수산업진흥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해양과학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 1962년 한국해양과학위원회 설립과 96년 한국해양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총무간사를 역임하는 등 초창기 한

국 해양학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벌써 40여년도 넘었네요. 처음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해양과학은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로, 학문적인 연구에만 매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연구보다는 학회 활동을 통해 해양과학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풍토를 다듬는 일에 쏟아부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라는 말처럼, 한국해양학회 등 여섯 개의 해양관련 학회의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역임해 온 허형택연구위원은 IOC, APEC 등 해양관련 국제회의의 국가대표로 참석하고,

국제해양과학기구 WESTPAC의 부의장, PACON의 부회장,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PICES의 의장이기도 하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해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백70여편에 달하는 논문과 8권의 관련서적을 발간하는 등 연구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남극 과학기지 건설사업’의 책임자로 최초의 해외기지인 한국남극기지 건설을 주도한 바 있으며,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를 통하여 태평양 심해저 광구 15만km<sup>2</sup>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